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요약보고서)

2024



ISSUE BRIEF



이 보고서는 돌봄 청소년 권리 옹호를 위해 월드비전이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형중 LAB2050 대표/상임이사

김지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문연구위원

조원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임소현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원

【행정보조원】 오서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감수 및 편집】 최아람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간사

조윤호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미정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국제보건 전문가

Summary

요약

이 이슈브리프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지만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돌봄 청소년'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케어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영국, 활발히 지원활동을 펼치는 호주, 우리와 유사하지만 더 앞서 정책을 발전시킨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돌봄 청소년 지원정책과 체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1,100여 명의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돌봄 청소년 및 실무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돌봄 청소년들이 겪는 돌봄 역할, 부담, 그리고 발달과업 성취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돌봄 청소년들이 당연히 권리로 누려야 할 경제적 안정, 교육, 고용, 돌봄, 관계 등이 상당히 취약함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초래할 수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돌봄 청소년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인 돌봄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에서 돌봄 청소년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돌봄 청소년이 자신이 돌봄 청소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다양한 정책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들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연계시킬 전담 복지사를 시군구별 1인 이상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에 돌봄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도 제안하였습니다.

돌봄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돌봄 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해봅니다.

목차

제1장 왜 돌봄 청소년을 주목해야 하는가	7
제2장 해외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13
1. 영국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현황	14
2. 호주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현황	17
3. 일본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현황	18
제3장 국내 돌봄 청소년 현황 및 지원체계 실태	25
1. 국내 돌봄 청소년 현황	26
2. 국내 돌봄 청소년 관련 법률·조례·정책 분석	27
3. 국내 돌봄 청소년 발굴노력 및 지원사업 현황	31
4. 국내 연구와 정책, 지원사업의 함의	33
제4장 돌봄 청소년 양적조사 및 분석	35
1. 조사개요	36
2. 응답자 기초통계	37
3. 돌봄 청소년의 돌봄부담과 그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	39
제5장 돌봄 청소년 질적조사 및 분석	43
1. 조사개요	44
2.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결과	46
3. 실무종사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50
제6장 정책적 함의 및 제언	53
1. 정책적 함의	54
2. 정책적 제언	56

표·그림

표 1. 영국과 호주, 일본의 돌봄 청소년 정의 및 정책 요약	14
표 2. 영 케어러의 가정 내 돌봄의 범위와 예시	15
표 3. 돌봄 청소년 관련 국내법 분석 요약(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27
표 4. 지방자치단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	28
표 5. 국내 돌봄 청년지원사업 현황(2021.12~2023.6 기준)	32
표 6. 가족 돌봄 이유	38
표 7. 경제활동을 하는 돌봄 청소년의 월평균소득	39
표 8. 전체 돌봄 청소년 발달과업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의 대응포본 T검정	41
표 9.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기초 정보	45
그림 1.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및 삶의 질	9
그림 2. 일본의 돌봄 청소년 사례	18
그림 3. 돌봄을 시작한 연령	19
그림 4.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지각/조퇴 상황	19
그림 5.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학교 생활	20
그림 6.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돌봄 어려움	20
그림 7. 대학 진학 시 돌봄으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21
그림 8. 돌봄으로 인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거나 포기한 것	21
그림 9.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추세 (평활화 곡선)	40
그림 10.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56



ISSUE BRIEF

제1장

왜 돌봄 청소년을 주목해야 하는가



제1장

왜 돌봄 청소년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돌봄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영케어러(young car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가족영케어러(family young carer)'라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돌봄 청소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을 돌보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 및 청년의 기준은 여러 정책과 연구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 청소년과 돌봄 청년 모두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통일성을 위해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이슈는 2021년 한 청년이 생활고 끝에 간병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았다. 이후 정부는 2022년 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에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그림 1 참조) 돌봄 청소년은 평균 46개월 이상 돌봄을 지속했으며,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39.1%)였으며,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 21.7%에 달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일반 청년의 두 배, 주돌봄자의 경우 세 배 이상이었다.

그림 1.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 현황 및 삶의 질



출처: 보건복지부(2023)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돌봄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돌봄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돌봄 청소년과 돌봄 청년이 늘어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대상은 증가하고 제공자는 줄어드는 상황에, 핵가족화와 가족 연대 약화가 겹치면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양적 설문조사, 질적 심층면접,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돌봄 청소년의 생활과 어려움, 복지 수요, 복지서비스 접근 경험 등을 조사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와 정책 사례를 검토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4년 「월드비전 가족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소년·청년 1,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지역, 연령, 성별, 돌봄 유형 등을 고려해 15명을 선별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이는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돌봄 청년 실태조사 표본인 810명보다 큰 규모다. 또한,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경험이 있는 월드비전과 파트너십 기관의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도 진행했다.

본 연구는 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포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정보 제공 및 의뢰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공공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월드비전은 20개 사업장, 300여 개 파트너십 기관을 통해 전국 단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향후 돌봄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 결과가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돌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SSUE BRIEF

제2장

해외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제2장

해외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이 장에서는 해외 돌봄 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정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돌봄 청소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처음 다루고 학술적 연구를 시작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정책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다.

표 1. 영국과 호주, 일본의 돌봄 청소년 정의 및 정책 요약

	‘돌봄 청소년’ 정의	정부 지원정책	유관 민간단체
영국	다른 사람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	·돌봄 청소년육구 ·단기돌봄서비스 ·간병인 수당	·The Carers Trust Network ·Young Carers Alliance
호주	장애, 정신질환, 만성질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문제를 겪거나, 허약한(frail aged) 노인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급으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25세 이하의 사람	사회서비스부의 Carer Gateway 프로그램	·Carers Australia ·Young Carers Network(YCN)
일본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어른이 맡아야 할 돌봄 책임을 대신하여 가사, 일, 가족 돌봄, 감정적 지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역마다 영케어러 코디네이터 배치	

1. 영국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돌봄 청소년을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영국은 2014년 제정된 아동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제96조와 17ZA(돌봄 청소년의 육구 평가: 잉글랜드)에 돌봄 청소년을 “다른 사람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돌봄 청소년이 제공하는 돌봄의 범위에는 실질적(practical) 또는 정서적(emotional) 돌봄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2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Dearden & Becker, 2004). 돌봄 청소년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돌봄 기간’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하여 ‘돌봄자 육구 평가(Carer’s needs assessment)’를 통해 돌봄 청소년을 판별한다.¹⁾

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part/5/crossheading/young-carers-and-parent-carers>(최종 접속일: 2024.06.18.)

표 2. 영 케어러의 가정 내 돌봄의 범위와 예시

돌봄 범위	예시
집안일	요리, 청소, 빨래, 다림질 등
일반적인 돌봄	시간에 맞춰 약 제공, 옷 갈아입히기, 이동 도움 등
감정적 지원	환자 보호(supervision), 환자가 우울할 때 격려하는 행위 등
사적인 돌봄	씻기, 옷 입히기 및 화장실 관련 도움
아이 돌봄	어린 형제자매 돌보기
기타	가계 활동, 공과금 납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통역 및 병원 동행 등

출처: Dearden & Becker(2004), p.7; 이봉조(2022), p.8에서 재인용

영국에서는 돌봄 청소년(young carer)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18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의 청년을 ‘돌봄 청년(young adult carer)’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의 권리는 아동가족법이 아닌 ‘돌봄법(Care Act 2014)’에 명시되어 있다. 돌봄 청년을 돌봄 청소년과 구분해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호주나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호주는 25세 이하의 모든 가족 간병인을 통칭하여 돌봄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 돌봄 청소년의 규모는 인구총조사(census)를 통해 확인한다. 영국 통계청(ONS)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5세부터 17세까지의 돌봄 청소년은 잉글랜드 인구의 약 1.2%, 웨일스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돌봄 청소년을 파악했다.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나 질병, 또는 노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누군가를 돌보거나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돌봄 청소년은 교육, 경제 상태, 고용, 건강, 삶의 질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Becker & Sempik(20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4세~25세 돌봄 청소년은 지난 2주 동안 평균 2.5일 학교에 결석했으며, 돌봄의 책임이 클수록 지각과 결석이 잦고 중도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Kettell(2020)은 지원을 받지 못한 돌봄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일반 학생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 Becker & Sempik(2019)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돌봄 청년의 17%가 학업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ley & Phelps(2016)의 연구에서는 돌봄 청소년 중 약 68%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돌봄 부담, 학력 부족, 경력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다. 돌봄 대상자로 인해 오랜 시간 집을 비우거나 멀리 이동하기 어렵고, 돌봄 대상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을 멈춰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직업 선택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Becker & Becker, 2008). 또한, 돌봄 부담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uckner et al., 2010; Collins & Bayless, 2013).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돌봄 청소년 욕구 평가제도(Young Carer’s Needs Assessment)’²⁾가 있다. 2014년 아동가족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청소년이 과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Interview with Mr. McGowan; 박지영·김병철, 2023).

2 https://londonsafeguardingchildrenprocedures.co.uk/young_carers.html (최종 접속일: 2024.06.24.)

지방정부는 욕구 평가 결과에 따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단기 돌봄 서비스(respite care)³⁾가 있다. 이를 통해 데이케어 센터 이용, 요양원 단기 체류, 돌봄 대상자와의 동반 휴가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으로 방문하여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을 통해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수당은 정부가 인정하는 수당(qualifying benefits)을 지급받는 사람을 돌보는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풀타임 교육을 받거나 주 21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1월 기준으로 간병인 수당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3,682명에 불과했다(Foley et al., 2022).

영국에는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Carers Trust가 있으며, 이들은 돌봄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원, 복지와 생활기술 교육,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허민숙, 2022)를 제공한다. 이 기관이 조직한 The Carers Trust Network⁴⁾는 영국에서 가장 큰 지역 돌봄자 단체 네트워크로, 120개 이상의 지역 단체와 백만 명 이상의 돌봄 제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급 돌봄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허민숙, 2022). 또한, Young Carers Alliance⁵⁾에는 200개 이상의 단체와 50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여 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g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carer-breaks-and-respite-care/> (최종 접속일: 2024.06.24.)

4 <https://carers.org/our-networks/the-carers-trust-network> (최종 접속일: 2024.06.18.)

5 <https://carers.org/young-carers-alliance/young-carers-alliance> (최종 접속일: 2024.06.18.)

2. 호주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호주는 돌봄 청소년을 “장애, 정신질환, 만성질환,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문제를 겪거나 허약한(frail aged) 노인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급으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25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Carers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에는 23만 5,000명 이상의 돌봄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2016년 ‘인구총조사(census)’ 자료에 따르면, 15세-24세 중 약 5.6%(15만 1,600명)가 돌봄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주의 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은 ‘사회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를 중심으로, Carers Australia와 그 회원기관인 지역 비영리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영준 외, 2022).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Carer Gateway(<https://www.carergateway.gov.au/>)가 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대면 및 전화 상담, 전문 코치와의 상담, 돌봄 역할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웰빙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 과정, 재정 패키지, 긴급 임시 간호 제공 등 돌봄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돌봄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와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Carers Australia는 호주의 대표적인 돌봄 청소년 비영리단체로,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Young Carer Bursary는 돌봄 청소년들이 돌봄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하거나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호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Carers Australia가 이를 관리한다. 지원금은 연초에 2,500달러를 지급하고, 중간연도 설문조사(MYS) 완료 후 6월에 1,000달러, 11월에 연말 설문조사(EOYS) 완료 후 최종 지급금 268달러를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학비,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 구매, 유니폼 구매, 교통비와 숙박비, 임시 간호, 과외 활동 등 학업과 훈련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Carers Australia는 ‘Young Carers Network(YCN)’라는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지원을 안내하는 전국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YCN은 돌봄 청소년이 지역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최종 접속일: 2024.06.20.), <https://youngcarersnetwork.com.au/young-carers-info/young-carers/> (최종 접속일: 2024.06.20.)

7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최종 접속일: 2024.06.20.)

8 <https://www.carergateway.gov.au/> (최종 접속일: 2024.06.20.)

3. 일본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정책 현황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사, 가족 돌봄, 감정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가정청에 따르면, 아동기(18세 미만)에 더해 진학,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기를 단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대략 30세 미만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40세 미만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어린이가정청, 2024, p.2).

다음 그림 2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돌봄 청소년의 10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족을 위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림 2. 일본의 돌봄 청소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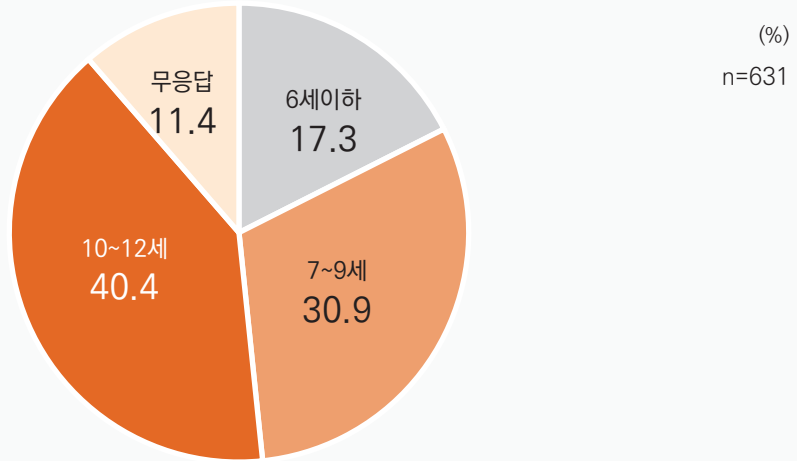


출처: <https://carersjapan.com/about-carer/young-carer/> (최종 접속일: 2025.01.03.)

일본에서는 돌봄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왔다. 모리타 쿠미코(2016)는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의 후생노동성 사회생활기초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10-14세는 약 1%, 15-24세는 약 2%로, 돌봄 청소년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6년 오사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마시마 요시에·미야카와 마사미츠(2016)의 연구에서는 돌봄 청소년 출현율을 6.2%로 보고하였다. 돌봄 내용으로는 가사 일이 44%, 힘쓰는 일 40%, 외출 동행 35%, 감정적 지지 28%, 병원 간호 24%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 상황에 대해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달해 돌봄 청소년들이 고립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2022년 일본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돌봄 청소년 출현율은 6.5%, 대학생의 경우 6.2%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돌봄을 시작한 시기는 10-12세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7-9세에 시작한 경우도 30.9%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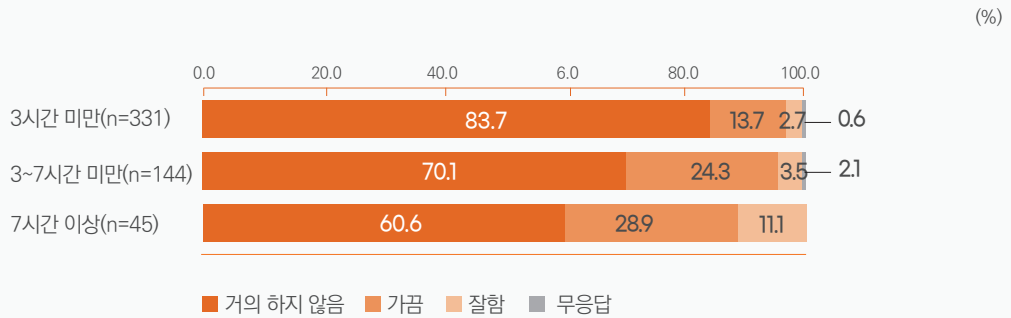
그림 3. 돌봄을 시작한 연령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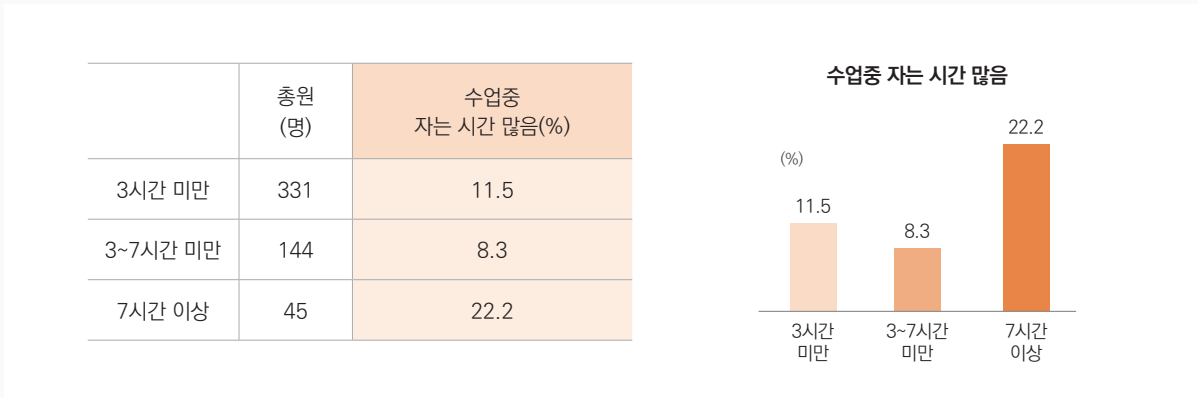
돌봄 시간이 길수록 지각과 조퇴, 수업 중 졸음 등의 문제가 심각했으며, 7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 그룹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지각/조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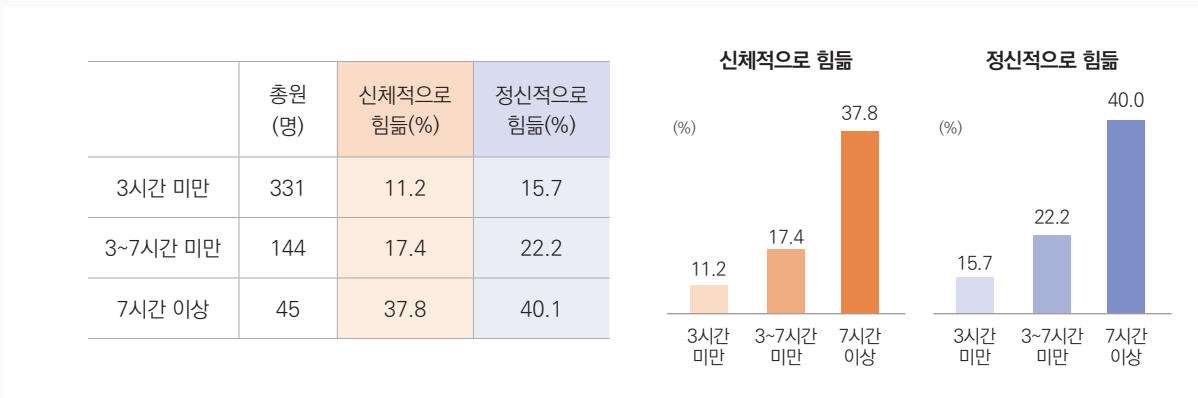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103.

그림 5.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학교 생활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103.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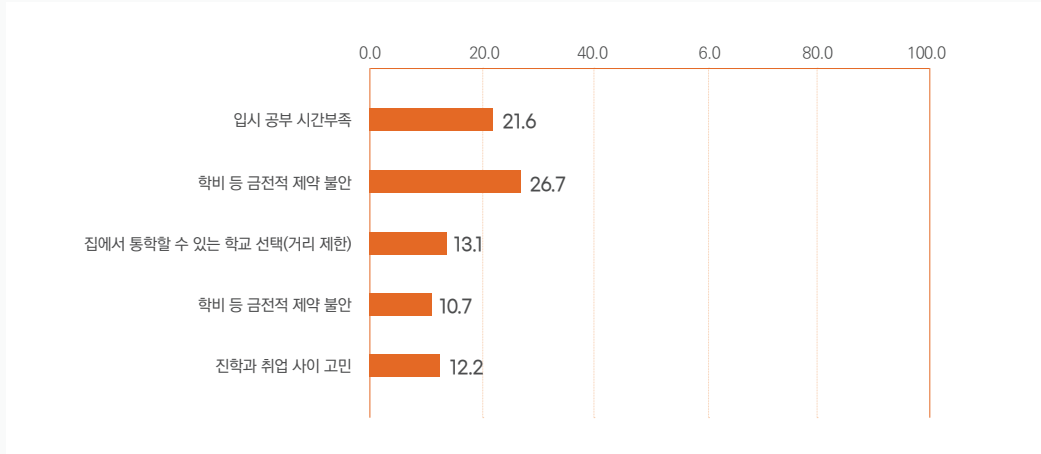
그림 6. 평일 하루 돌봄 소요 시간 x 돌봄 어려움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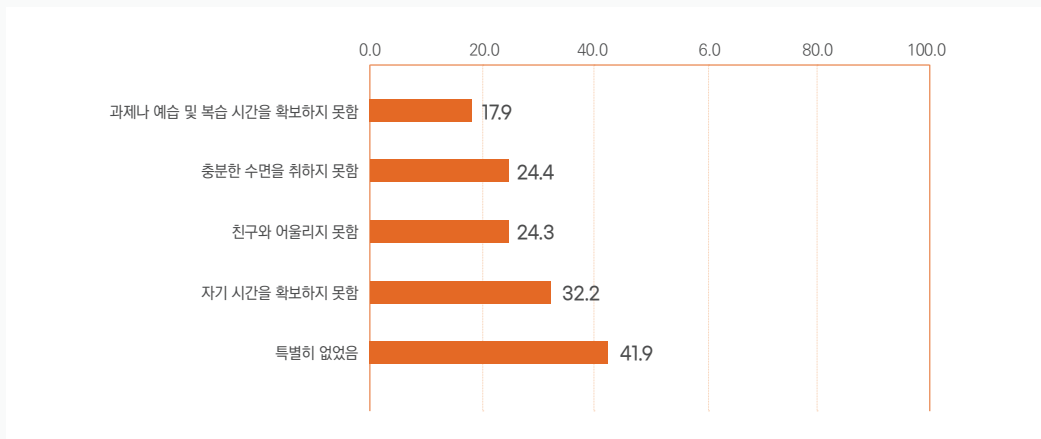
대학생의 경우 돌봄을 시작한 시기는 ‘대학교 입학 이후’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때 시작한 경우도 30%에 달했다. 돌봄 수행으로 인한 대학 진학의 어려움과 고민은 그림 7에서, 돌봄으로 인해 포기한 활동 등은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대학 진학 시 돌봄으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152.에서 인용

그림 8. 돌봄으로 인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거나 포기한 것



출처: “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総合研究所, 2022, p.153.에서 인용

일본은 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로 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영케어러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지역에 맞는 지원기관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각 시도부현 등에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지원, 관계기관 직원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영케어러 코디네이터를 배치했고, 배치장소는 지역 실정에 맞춰 복지사무소나 관련 지원 부서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정하고 있다.⁹⁾

영케어러 코디네이터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공인심리사, 보건사, 케어 매니저, 개호복지사 등 영 케어러 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개호지원, 생활지원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들은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9 厚生労働省(2023). ヤングケアラー支援体制強化事業の実施について {후생노동성, 2023. 영 케어러 지원체제강화사업의 실시에 대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0eb9d18-d7da-43cc-a4e3-51d34ec335c1/f64d7a21/20230401_policies_young-carer_05.pdf (최종 접속일: 2024.10.01)





ISSUE BRIEF

제3장

국내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지원체계 실태



제3장

국내 돌봄 청소년 연구 및 지원체계 실태

1. 국내 돌봄 청소년 현황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돌봄 청소년에 대한 규모나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정의가 없고, 돌봄 청소년 스스로를 돌봄자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노혜진, 2023; 좌현숙, 2023).

2022년 돌봄 청년 실태조사(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13~34세)의 1.8%(810여 명)가 부모, 형제, 친지를 돌보는 돌봄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더 폭넓게 추정하기도 했다. 최영준 외(2022)는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2012년)부터 16차(2021년)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청소년을 전체 인구의 약 4%로 추정했다. 여기에서 정의한 돌봄 청소년은 “건강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1점 이하인 가구원과 함께 사는 18세~34세의 청소년”이었다.

돌봄 청소년은 영국, 호주,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돌봄 부담과 생활비 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 포기,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진로 준비 비용 부담과 자기 계발, 취업 준비에 대한 제약을 겪으며,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선미정 외, 2022; 최영준 외, 2022).

함선유(2023)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수행과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4세 돌봄 청소년에서 48.7%, 18세 이하에서 18.6%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청소년 중 우울함을 느끼는 비율은 61.5%에 달했으며, 주돌봄자의 경우 70.9%,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는 68.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에서 동일 연령대 일반 응답자의 우울감 비율 8.5%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영준 외(2022)의 질적 인터뷰에서도 우울감부터 자살생각 및 시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등 돌봄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났다.

2. 돌봄 청소년 관련 법률·조례·정책 분석

1) 법률 분석

현재 국내 법률에는 돌봄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법률에서도 돌봄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까지 돌봄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현재 돌봄 청소년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돌봄 청소년은 보호대상아동이나 지원대상아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별히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부모' 등을 정의하여 이들에게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원은 물품, 서비스, 또는 필요한 경우 금전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돌봄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돌봄 청년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돌봄 청년은 취약계층 청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3. 돌봄 청소년 관련 국내법 분석 요약(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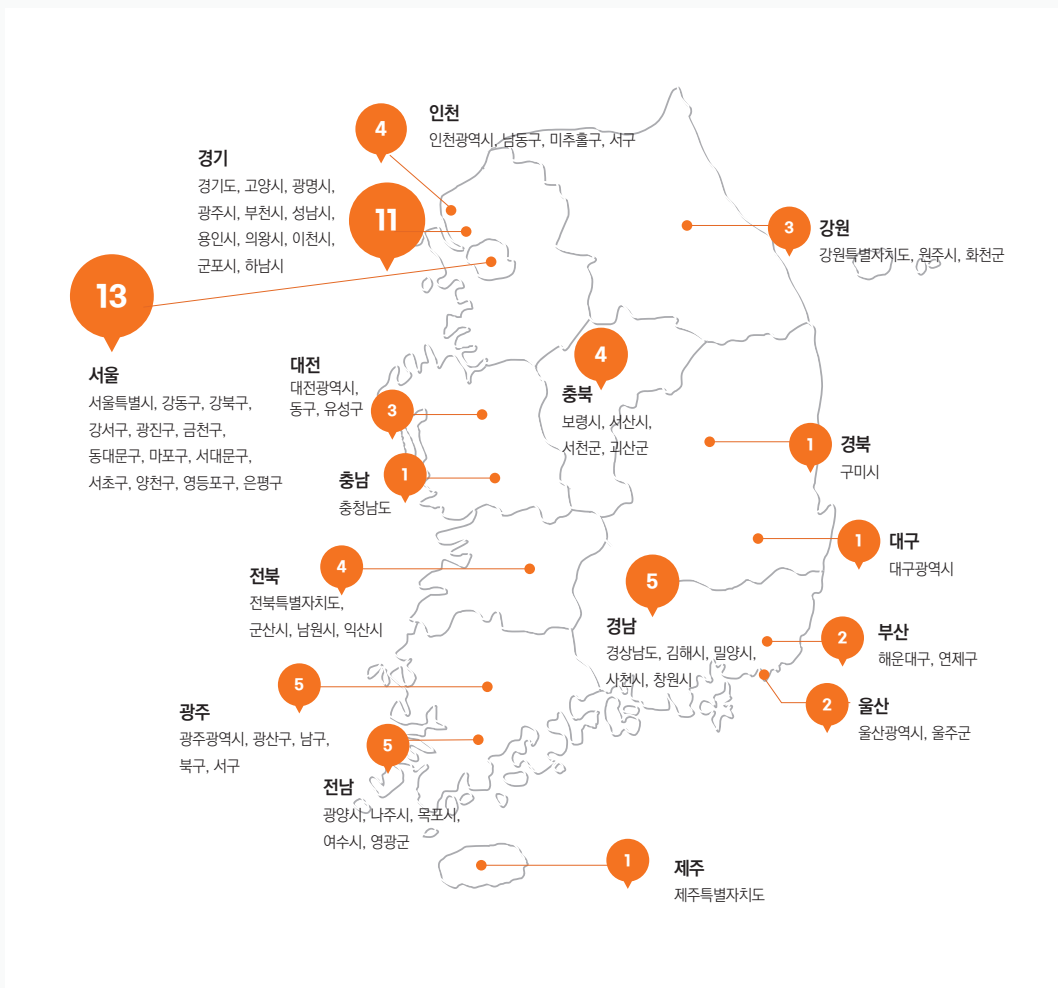
관련 법	연령 기준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3조 4항)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조 5항) 지원대상아동: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복지지원법	9세 이상 24세 이하	(2조 4항) 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2조 6항)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3조 5항) 취약계층 청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4조 6항)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돌봄 청소년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각각의 대상 연령,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해 돌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돌봄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돌봄 서비스에서부터 교육, 취업, 자립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한 대응 방안** 모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법률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돌봄 청소년 지원의 명확한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명에 '가족 돌봄 아동', '가족 돌봄 청년', '가족 돌봄 청소년'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총 65건이고,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12건, 기초자치단체는 53건이었다.

표 4. 지방자치단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4.5.31. 검색

2021년, 22세 청년이 생활고로 간호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남 김해시(2022.2.11.)이며, 이후 서울 서대문구(2022.12.30.)와 인천 미추홀구(2023.1.2.)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삶의 질 증진
2. 이들이 독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돌봄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고립 방지

강제성과 임의성의 차이

조례의 강제성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26개 지자체(약 40%)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하여 단체장의 책임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36개 지자체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을 두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상자의 범위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모두 포함한 지자체는 43개, 청소년만 명시한 지자체는 12개, 청년만 명시한 지자체는 9개다. 대상 연령은 대체로 9세-34세(혹은 39세)이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더욱 제한적으로(13세-34세) 설정하거나, 폭넓게(-45세)¹⁰ 규정하기도 한다.

돌봄 대상 요건

모든 지자체가 돌봄 대상 요건으로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50%인 32개 지자체는 ‘고령’을 인정하고 있다. ‘약물·알코올 남용’ 문제를 포함한 지자체는 12개, 생계책임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 곳은 11개(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등)다. 일부 지자체(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등)는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가 동일 주소지나 같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대상과의 관계 규정 조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가족’이란 「민법」제779조¹¹에 따른 사람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남구에서만 ‘사실혼의 배우자 및 양친자’ 관계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범위

대부분의 지자체는 돌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94.8% (61개 지자체)
- 심리·정서 상담 지원: 95.4% (62개 지자체)
- 직업훈련·취업 지원: 89.2% (58개 지자체)
- 문화·체육활동 지원: 84.6% (55개 지자체)
- 교육 지원: 53.8% (35개 지자체)

사후관리 조항을 포함한 지자체는 37곳(56.9%)이며, 간호·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13곳(20%), 주거 지원을 포함한 곳은 11곳(16.9%)이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5곳),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정보 제공(2곳) 등의 사업도 명시하고 있다.

¹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임.

¹¹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책대상자 발굴 문제

정책 대상자의 발굴은 돌봄 청소년 지원의 첫 관문이지만, 이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와 경남 본청 두 곳뿐이며, 구체적인 발굴 절차와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재정 책임 및 행정적 지원조례

조례를 제정한 86.2%의 지자체가 재정 책임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책임성이 크지 않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는 보다 강제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 전달체계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는 주로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여성·가족 관련 부서로 나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전문지원 기관·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달체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담당 부서나 전문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40개 지자체
-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부서(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등): 11개 지자체
- 여성·가족 관련 부서(가정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6개 지자체

또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협의회 또는 위원회 설치, 전문 지원기관 및 인력 배치 등을 명시하여 정책 실행의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3. 국내 돌봄 청소년 발굴노력 및 지원사업 현황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방안(2022)은 교육, 고용, 의료 및 심리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으로, 돌봄 청소년 발굴과 사례 관리, 기존 제도 연계를 목표로 한다. 19세 미만은 중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19세 이상은 대학 설문조사와 청년센터, 행정 데이터 및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분석했다. 2024년에는 일상돌봄서비스에 돌봄 청소년 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일상돌봄지원서비스'**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하며,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19~64세의 청년과 중장년 또는 질병 및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득 기준은 없으나 본인 부담률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돌봄 청소년의 경우,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해야 한다.

이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대상 가족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이는 진단서·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지역 판단에 따른 조사로 증빙한다.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한다.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QR 코드

일상돌봄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160%는 본인부담 10~20%, 중위소득 160%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도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 시행하는 **시범 사업**도 있다.

-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의 돌봄 청년 시범사업 단독 시범구로 선정되어 2024년 2월부터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돌봄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9~34세 이하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후원자원 연계,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서구는 돌봄 청년에게 매월 25만 원씩 1년간 돌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9~39세 돌봄 청년으로,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기타 돌봄 청년 지원사업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중간지원조직, 비정부기관(NGO), 사회복지관 등이 다양한 돌봄 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상담, 경제적 지원,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청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5. 국내 돌봄 청년지원사업 현황(2021.12~2023.6 기준)

구분	기관명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중간지원 조직	강남복지재단	만 14세~34세 이하, 강남구 거주, 중위소득 120% 이내	- 1인당 최대 300만원지원 - 가사 지원, 가족여행비 지원, 상담비용 지원 등의 특화서비스 제공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을 돌봄으로 학업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 150명	- 생계지원, 돌봄지원, 학업지원, 사례관리비 지원
	용인미래재단	용인시 거주,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책임지고 있는 9세~24세 이하 청소년 20명	- 생계비, 교육비, 심리정서 지원비, 문화지원비 지원 -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참여연계, 참여자 자조모임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와 1:1 멘토상담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 서구 거주, 만 13세~34세 이하,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 돌봄지원사 파견: 돌봄 지원 - 내일희망프로그램 지원서비스: 교육 및 자립 지원
NGO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의 경제적 또는 신체적 돌봄을 혼자 부담하거나, 신체적 돌봄을 함께 부담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나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 1인당 총 130만원 지원 - 생활위기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 자기돌봄지원금: 교육비, 심리정서 지원비, 문화지원비, 자기개발비
	기아대책	부모를 대신하여 생계 책임을 지거나, 아픈 부모 및 조부모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30명	- 1인당 총 100만원 (자기개발비 70만원, 바우처를 통한 심리정서지원 30만원)
	서서울생명전화	서울시 거주, 만19세 ~39세 가족돌봄 청소년 30명	- 심리상담지원, 단기돌봄서비스, 힐링스쿨(문화활동지원, 자조집단 지원, 돌봄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
사회 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 돌봄과 함께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을 병행, 14세~32세, 전주시 거주, 가족돌봄 청년 15명	- 교육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여가지원 - 긴급위기지원: 월 16시간 정기적 돌봄인력 파견,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질병, 장애, 고령의 가족 돌봄, 가사 전담, 만성질환(암, 난치병, 정신질환 등) 가진 가족 간병, 충주시 거주, 10대~30대 청년	- 가족돌봄비(192만원) 및 자기돌봄비 (100만원)
	오산시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 정신 및 만성질환, 알콜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 돌봄, 오산시 거주, 10대~20대 청년	- 청년: 교육비(50만원), 생계비 (긴급생계비 30만원, 긴급의료비 50만원, 긴급주거비 50만원), 심리·정서지원(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100만원, 힐링 캠프 및 문화체험비 30만원) - 돌봄 대상자: 일상생활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출처: 노혜진(2023)의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현황 분석' 논문 내용을 요약 정리함

4. 국내 연구와 정책, 지원사업의 함의

돌봄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정의의 필요성

돌봄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보다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 피돌봄자의 상태, 돌봄자의 연령, 돌봄 기간, 돌봄 형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과 일본은 언어적 지원, 감정적 지지, 생계 책임까지 돌봄 범주에 포함한다. 자녀를 돌보는 청소년은 기존 부모·유아 지원체계와의 중복 문제로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따라서 기존 관련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 방안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홍보와 발굴,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돌봄 청소년은 스스로를 돌봄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2%만이 관련 개념을 들어봤으며, 서비스 미이용자의 75%는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돌봄 청소년임을 인식하게 하고, 발굴된 청소년에게 기존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식 개선 및 낙인감 최소화

돌봄 청소년을 희생자나 문제집단으로 인식하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지원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며, 초·중·고 및 대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

현재 일상돌봄서비스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각 증빙이 복잡하고, 특히 청소년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발굴주의로 전환하고, 청소년이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자체 격차 해소 및 민관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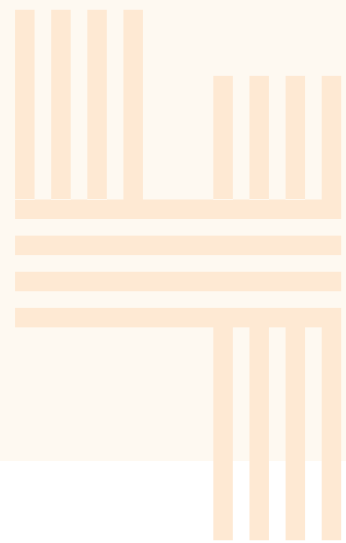
226개 기초지자체 중 65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재정 자율성과 지역별 서비스 편차로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활용해 유연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SSUE BRIEF

제4장

돌봄 청소년 양적조사 및 분석



제4장

돌봄 청소년 양적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월드비전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대상자 중 **1,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 연령은 만 6~35세로, 남성 44%(490명), 여성 56%(627명)였다. 설문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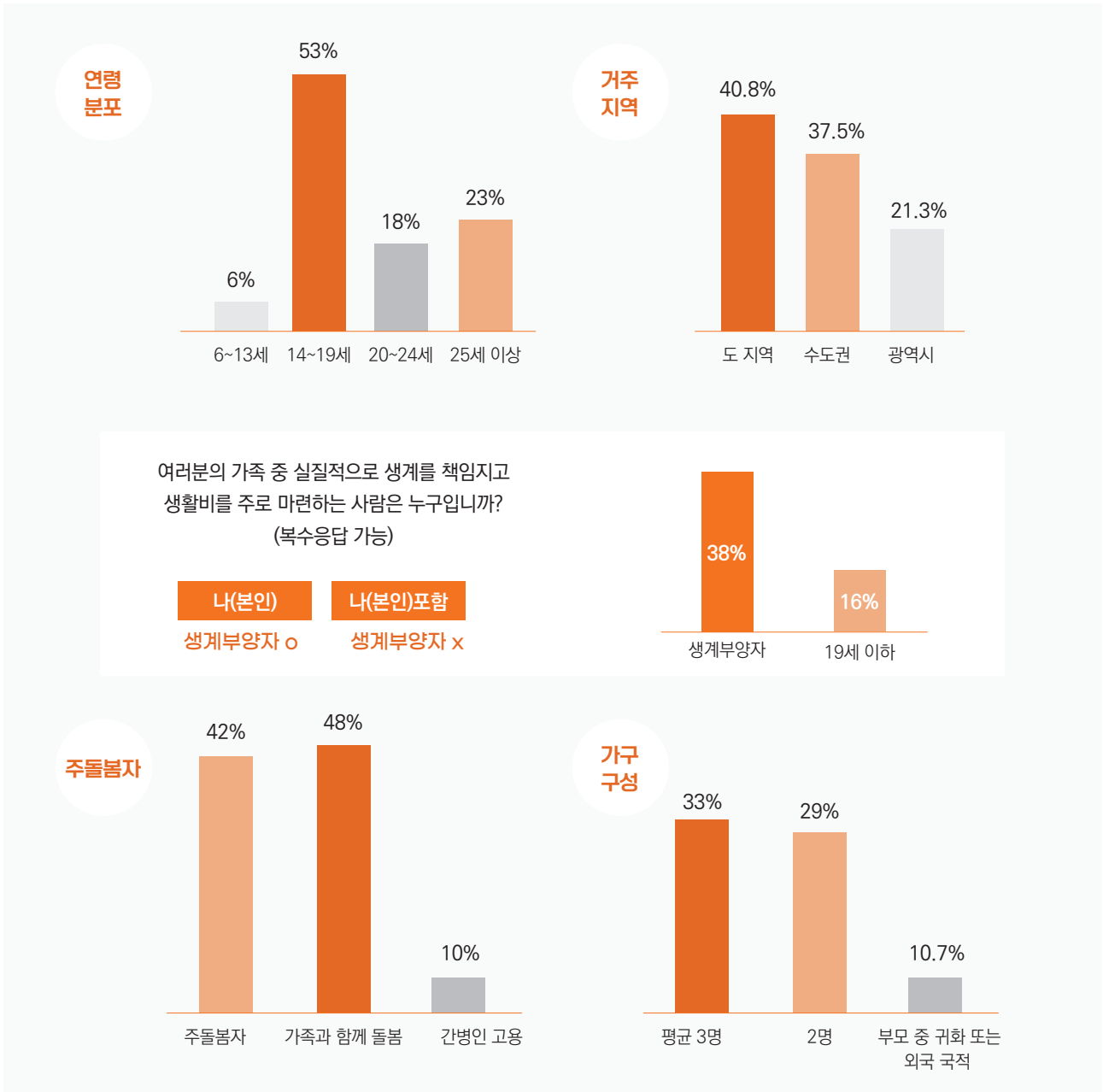
1. 돌봄 청소년의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돌봄 및 지원 현황, 복지 욕구 파악
2. 성별, 연령, 지역, 생계부양 여부, 주돌봄자 여부를 기준으로 가족 돌봄 부담과 영향 비교
3. 돌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발달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월드비전 지부와 복지관의 지원을 받았다. 설문 응답이 어려운 저연령층은 법적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 응답자 정보를 철저히 보호했으며, 성별 및 연령이 불분명하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는 무작위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세부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아 통계적 유의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응답자 기초통계

1) 주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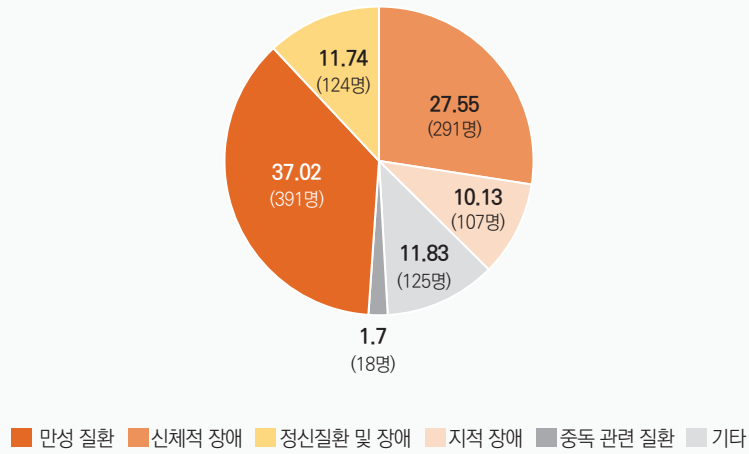


2) 돌봄 청소년의 가족 돌봄 현황

- **돌봄 용어 인지도:** '돌봄 청소년' 또는 '돌봄 청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으며, 중고등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 **돌봄 기간:** 평균 돌봄 기간은 52개월, 표준편차는 41.2개월로 편차가 컸다. 6~13세의 평균 돌봄 기간은 37개월, 25세 이상은 71개월이었다.
- **돌봄 이유:** '만성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37.0%가 이를 돌봄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표 6. 가족 돌봄 이유

(%)



3)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어려움 공유 및 도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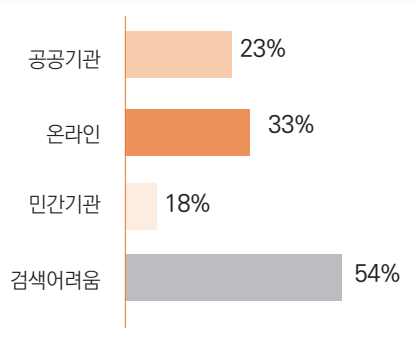
24%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 없다 12% 자신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 또는 기관이 없다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기관

32% 공공기관 26% 민간기관 8% 받고싶지 않음

⊕ 창피해서, '민폐 같아서' 등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등 정보 부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이용 경험

58% 서비스 신청/이용 없음

54%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25% 신청 방법을 몰라서

4) 지원서비스 욕구

돌봄 청소년이 원하는 지원서비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비 지원(1순위 77%, 2순위 13%)
2. 의료비 및 간병 지원(1순위 10%, 2순위 34%)
3. 학습·취업 지원(1순위 5%, 2순위 25%)

가사지원 및 상담지원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게 나왔으나, 이는 실제 필요성 부족 때문인지 경험 부족 때문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3. 돌봄 청소년의 돌봄부담과 그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

1) 경제활동과 소득

- **경제활동 여부:** 생계부양자 423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63%**(266명), 비생계부양자 693명 중 **13%**(89명)였다. 경제활동 유형으로 는 시간제(60%)가 가장 많았고, 전일제(30%), 투잡, 자활사업, 배달, 프리랜서 등이 뒤를 이었다.
- **근무 시간과 소득(표 7):** 경제활동자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24.3시간**,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55.7%로 가장 많았다. 생계부양자 집단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 **소득 지출 비율:** 생계부양자의 7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돌봄 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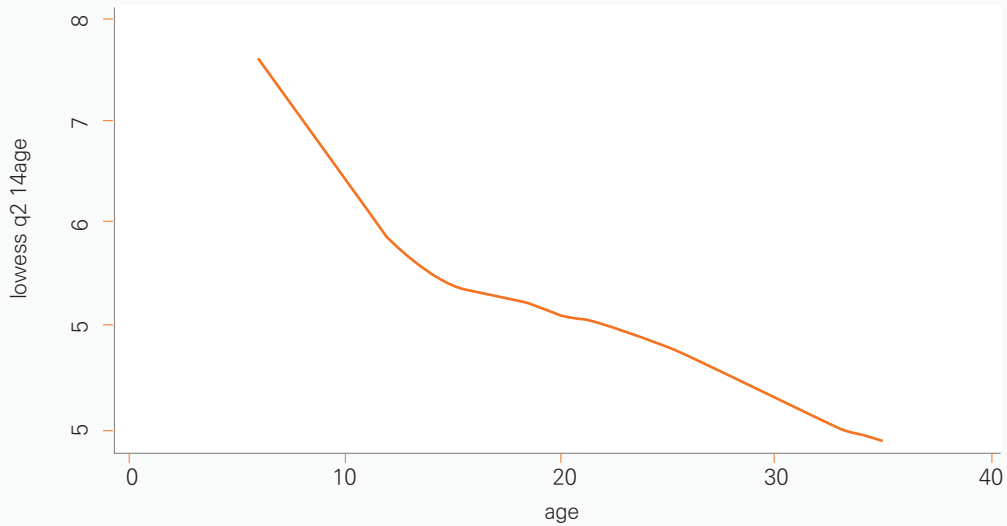
표 7. 경제활동을 하는 돌봄 청소년의 월평균소득

구분	전체		생계부양자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100만 원 미만	195	55.71	123	46.77
100~200만 원 미만	102	29.14	89	33.84
200~300만 원 미만	53	15.15	51	19.39
300~400만 원 미만	0	0	0	0
400만 원 이상	0	0	0	0
전체	350	0	263	0

2) 돌봄 부담과 사회적 어려움

- **돌봄 부담:** 생계부양자와 주돌봄자는 각각 학습, 진로 유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 및 또래 관계, 기초생활 유지에서도 생계부양자와 주돌봄자가 비생계부양자보다 어려움이 컸다.
- **신체·정신적 건강:**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관리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으며, 삶의 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림 8과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초기에 급격히 감소했으며, 20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추세 (평활화 곡선)



3) 발달과업 중요도와 수행도 격차

- **중요도와 수행도 격차**(표 8): 가장 큰 격차는 **경제활동**과 **진로탐색** 및 **미래계획**에서 나타났고, 공부 및 성적관리, 건강 및 신체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격차가 컸다. 연애와 결혼은 수행도가 가장 낮았으나, 이는 관심 부족이 아닌 여력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 **연령별 분석:**
 - 14~19세: 경제활동(1.35), 공부 및 성적관리(0.9), 건강 및 신체관리(0.87)에서 격차가 컸다.
 - 20~24세: 스트레스 관리도 주요 격차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 25세 이상: 스트레스 관리(1.48), 건강 및 신체관리(1.46),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책임이 학업, 진로, 관계, 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지원 필요 영역이 다르므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도 저하가 청소년 초기부터 심화되므로, 조기 개입과 지원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표 8. 전체 돌봄 청소년 발달과업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의 대응포본 T검정

구분	중요도 인식 (1~4점)			수행도 인식 (1~4점)			양측검정 p값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양심, 도덕성 등의 가치 체계 개발	1,063	3.46	0.63	1,063	3.14	0.7	0.0000
진로탐색 및 미래 계획	1,049	3.53	0.62	1,049	2.62	0.86	0.0000
공부 및 성적관리	1,056	3.3	0.74	1,056	2.42	0.86	0.0000
건강 및 신체관리	1,053	3.59	0.61	1,053	2.56	0.88	0.0000
친구나 선후배, 동료 등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1,056	2.95	0.96	1,056	2.82	0.88	0.0003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1,055	3.21	0.78	1,055	2.55	0.94	0.0000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및 역할 이행	1,055	3.34	0.66	1,055	2.73	0.83	0.0000
연애나 결혼	1,050	2.5	0.97	1,050	1.95	0.94	0.0000
경제활동(아르바이트 포함)	1,051	3.6	0.9	1,051	2.32	1.07	0.0000
저축 및 소비 관리	1,051	3.46	0.7	1,051	2.47	0.95	0.0000
스트레스 관리(취미활동 포함)	1,045	3.46	0.68	1,045	2.45	0.95	0.0000



ISSUE BRIEF

제5장

돌봄 청소년
질적조사 및 분석



제5장

돌봄 청소년 질적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돌봄 청소년 15명과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돌봄 청소년 관련 실무 종사자 10명과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했다.

- 돌봄 청소년의 복지 욕구와 필요를 심층적으로 파악
- 현재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
-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최적의 방안 모색
- 공적 지원 부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세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 및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7001988-202406-HR-2320-02). 인터뷰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인센티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터뷰 당일 서면 동의를 받았다. 특히 만 14~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유선으로 연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었다. 월드비전의 아동 및 성인 보호 지침에 따라 아동과 면담 시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독 대면을 금지했으며, 월드비전 실무자가 동행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기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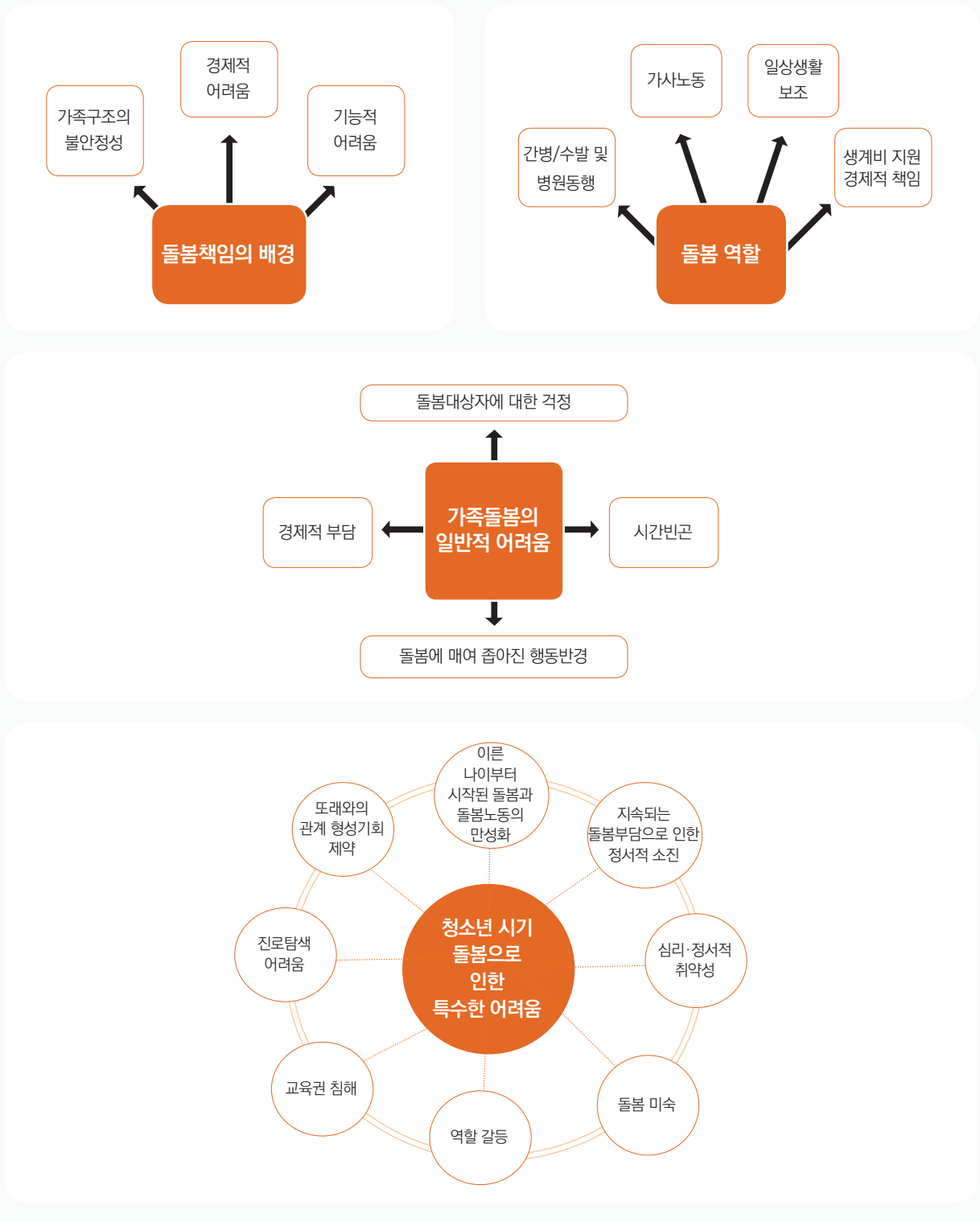
	성별	연령 (만)	교육수준	돌봄 대상	돌봄대상자 상태	돌봄활동	주돌봄자 여부	경제현황
1	여	25	대졸 (4년제)	어머니	노환, 당뇨, 하반신 마비 등	경제적 지원(요양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등)	O	어머니(국기초*), 본인(장애연금)
2	남	27	대졸 (4년제)	남동생	미성년(만 18세)	가사 전담+보호자 역할(동생 학업 및 진로 케어, 준비물 준비, 학부모 상담 등) 수행	O	동생(국기초), 본인 (과거국기초 수급자)
3	여	24	대졸 (4년제)	할머니	특별치매등급	목욕 및 식사 보조	X	가정위탁 (과거국기초 수급자)
4	여	19	대졸 (4년제)	어머니	천식, 당뇨, 알콜중독	경제적 지원(요양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등) 주말일상생활보조	O/비동거	본인(국기초)
5	남	15	중3 재학	어머니	이석증,대인공포증	집안일, 어머니/형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O	어머니(국기초)
				형	지적 장애			
6	남	17	고2 재학	아버지	뇌경색	집안일 보조, 병원동행, 병원입원생활도움	X	수급여부 모름
7	남	18	고3 재학	할머니	노환(특별한 지병은 없음)	행정 업무 지원, 심부름	O	할머니(국기초)
8	여	15	중3 재학	어머니	알콜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경제적 지원(요양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등)	O	차상위계층
9	남	23	대학교 (4년제) 재학	아버지	(장애판정) 뇌병변, 당뇨, 어깨외골격파열	식사 준비, 아침저녁 당뇨 인슐린 주사, 목욕이발 수발, 병원 동행	O	아버지(국기초)
10	남	16	고1재학	아버지	폐암	경제적 지원, 집안일 일부	O	수급여부 모름
11	남	18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통과	어머니	폐암 말기, 정신병력	경제적 지원, 집안일 전담	O	국기초 탈락
				남동생	미성년(만 14)			
12	여	18	고3재학	어머니	뇌경련, 간질	기본적인 일상생활보조(통역), 병원동행 집안일	O	국기초
13	남	15	중3 재학	어머니	(장애판정) 뇌출혈로 편마비증상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집안일	O	어머니 (장애인연금) 국기초 탈락
14	여	17	고2 재학	남동생	미성년	집안일 일부, 동생 돌봄	X	국기초
15	남	17	고2 재학	아버지	만성질환(당뇨)	간병(당 체크, 응급상황 시 대처), 가사일전담, 생활비,경제관리	O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결과

당사자 심층면접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당사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요약





1) 돌봄

돌봄 책임의 배경

돌봄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등을 경험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출신으로 가족구조가 불안정성했으며, 돌봄 책임이 빈곤과 맞물려 **약순환**을 초래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게임 중독이시거든요. 폭력을 해갔고 누나가 초등학교 때 재판에 섰던 적도 있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지금 뇌출혈 편마비 시라 왼쪽이 전부 다 마비셔서 거동이 안 돼요. (사례 13)”

돌봄 역할

돌봄 청소년의 역할은 간병, 가사노동, 일상생활 보조, 경제적 책임으로 나뉜다. 간병의 경우 병원 동행, 입원 시 상주, 약 챙기기, 인솔린 주사 등이 포함되며, 일부 미성년자는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돌봄 책임은 또래의 일상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보호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제가 모든 일을 담당을 해야 됐거든요. 저녁밥, 빨래, 동생 다음 날 뭐 챙겨야 할 준비물이라든지 학부모 사인,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사례 2)”

2) 주요 어려움

이들에게는 **시간 빈곤, 경제적 빈곤, 정서적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시간 빈곤

특히 주돌봄자나 중증 돌봄 대상자의 경우 시간 부족이 심각했으며, 학업과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돈이 많이 급해서 제가 이제 이제 새벽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일 끝나서 집에 오면 4시고 이제 집안일 밀린 빨래 돌리고 이런 거 다 하고 씻으면 5시예요.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17시간 주 7일 근무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사례 11)”

학업·진로탐색 제약

돌봄 책임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석을 경험하며 학업 성취와 교육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진로 선택에서도 가족 돌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근로 시간과 거리 등 조건이 제한되었다.

“엄마 입원하거나 술 먹고 연락 안 돼가지고 중간에 조퇴해 가지고 나간 적도 좀 많고요. 거실에 깨진 술병이나 그런 게 다 널브러져 있는데 엄마가 술을 먹고도 거길 건질 줄 모르죠. 근데 그걸 안 치우고 그냥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지각한 적도 많아요. (사례 4)”

관계 단절과 고립

또래와의 공감대 부족,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는 데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이 나타났다.

“좀 비슷한 가정 상황인 애들이랑 좀 지내고 확실히 좀 다채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사례 15)”

경제적 부담

약값, 병원비, 생계비 등 돌봄 비용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 꿈은 사실 사학과를 가서 고고학자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했을 때 고고학자의 월급 자체가 좀 많이 낮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당시에 수급자로 있을 때다 보니까 빨리 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요. (사례 2)”

정서적 소진

돌봄 책임감,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돌봄을 시작하며 정체성과 생활이 만성화되었고, 장기간 자기 돌봄이 부재하여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앓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약도 오랜 기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몸이 망가진 건가 이제 감정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례 11)”

3) 지원 체계의 한계

불충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기적 현금 지원이나 돌봄·가사서비스 등은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장학금, 병원동행, 심리상담 등)은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제도 연계 여부에 따른 정보·경제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비대상자는 정보와 지원에서 단절되었다. 비공식 경제활동이나 수급 한도 내 일자리 제한 등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연결되었다.

제도 연계 경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교**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동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활용되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사회적 지원의 초기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그 친구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자기가 하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거든요. 공공기관이랑 좀 연계를 해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4) 지원 접근성의 한계

돌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제도나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원이 닿지 않는 이유는 크게 정책의 접근성 부족 및 자격조건 미충족 등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거부적 태도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요인

현재 제도는 **파편화·분절화**되어 있으며,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족하다. 이에 돌봄 청소년은 제도 탐색에 어려움을 느끼며, 여력이 부족해 탐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히 해당되는지 몰라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례 14 친모)”

개인적 요인

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제도 신청을 거부하고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저희가 그걸 받으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복지센터에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방문 간호 아니면 방문 상담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다 거부를 하셨습시다. 어머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셔서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11)”

5) 복지 욕구

돌봄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진로 상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다. **자조모임**과 대인 서비스(가사·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성인 연구참여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가족 내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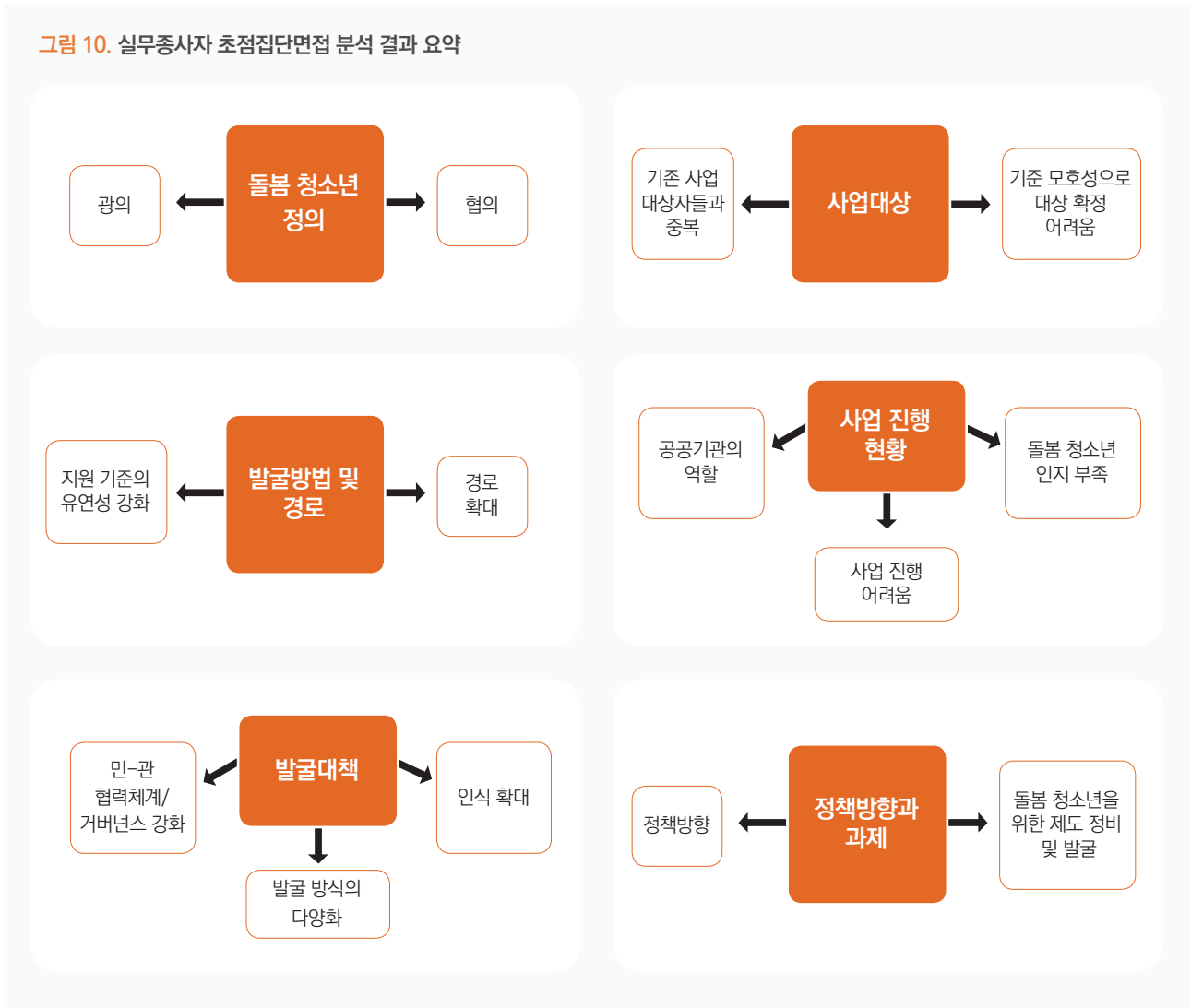
일부 돌봄 청소년은 돌봄 책임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돌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코칭 서비스**를 바람직한 지원으로 꼽았다.

“일 순위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와닿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내야 되는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 저희도 난방비 못 내 가지고 겨울에 집안에서 입김 나고 그랬던 적도 있어서 그런 필수적인 금전적 도움이 있었으면 좋았어요. (사례 4)”

“(돌봄) 경험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요. (사례2)”

3. 실무종사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그림 10. 실무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요약



돌봄 청소년 정의와 사업대상

실무종사자들은 돌봄 청소년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인식했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 돌봄의 기준과 책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 확정이 어려워 일관성 없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는 초기 사업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발굴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에 유연한 추천 방식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9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뿌려주고 그 9가지 중에 2가지를 한다라고 하면 가족 돌봄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은 편할 수 있으나, 민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민에서는 허들인 거예요. (사례 A)”

사업진행 현황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인식 부족으로 지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관 협력 강화, 발굴 방식 다양화, 당사자의 인식 확대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학교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교육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사와 교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늘 붙어서 이 사람을 케어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돌봄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빨래 개는 것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돌봄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진 아닌 것 같아요라는 것들까지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 가족 돌봄 청년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사례 C)”

“어떻게든 발굴을 하고 싶어서 도 관할 부서 팀장님과 그 실무자들이 14개 시군구를 다 돌았어요. 근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 세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부모 세대 중에 장애인 세대. 읍면동에서 그거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사례 A)”

정책대상 발굴 대책

학교, 병원 등 기관을 통한 발굴과 **자기 보고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 돌봄 청소년의 범위를 더 확장하여 **홍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돌봄 대상자의 언어 장벽이 청소년의 돌봄 부담으로 작용하나, 이는 지원 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연령별 발달단계와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일시적 서비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에 대해서 체계를 좀 더 확대하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주도를 하려면 관의 의지와 협력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 E)”

정책방향과 과제

돌봄 청소년과 돌봄 대상자의 고립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 체계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돌봄 지원 외에도 학습, 정서적 지원, 직업 교육과 연계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탈수급 이슈를 해결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어떤 미래지향적인 취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자기가 돌봐야 될 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전담 케어가 함께 병행이 돼야지만 이런 가정들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패키지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례 E)”



ISSUE BRIEF

제6장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제6장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함의

1) 돌봄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정의 필요

기존 연구들은 돌봄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점을 현재 정책의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돌봄 청소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돌봄 청소년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예: 동생을 돌보는 청소년,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청소년, 부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민법 779조에 정의되지 않은 친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등)이 지원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지방정부가 대상자의 정의를 유연하게 적용하며 지원을 제공해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대상자 구분이 필요하므로,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지원 여부는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2)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지 부족

돌봄 청소년 중 약 40%만이 자신이 돌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특히 19세 미만은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지 부족은 지원 서비스 탐색 노력을 저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다. 돌봄 청소년을 흔히 숨겨진 돌봄자(hidden carer)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에 부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는 강한 심리적 경향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3) 정책과 지원 체계 개선 필요

돌봄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공공부조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발굴과 연계가 어렵다. 공공부조 외 지원 제도(긴급지원, 간호간병서비스, 마음건강서비스 등)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을 위해 각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해 돌봄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정신질환·중독** 관련 대상자를 돌보는 청소년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으므로 (돌봄 대상자가 지적장애/정신질환/중독이 있는 경우가 전체 조사에서 약 20% 이상이 나왔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발달과업이 더 지체되고 있었다),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기법)는 돌봄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소득원을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민간 지원까지 연계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비공식 경제활동(국세청 신고 회피)을 선택한다. 이는 불합리한 고용조건에 응하게 하거나, 공식 노동시장을 회피하게 되어 중장기적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기법의 제한적 적용범위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 심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돌봄 청소년은 책임감, 스트레스, 돌봄의 만성화로 인해 정서적 소진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비밀이 보장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조모임은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면접에 참여한 돌봄 청소년 상당수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자조모임 참여를 권장하기 전 비밀이 보장되는 전문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적·횡수 제한 형태의 지원은 부족하다.

5) 진로탐색 및 자기 계발 지원 강화

가족 돌봄과 생계 관리로 인해 돌봄 청소년의 진로 선택의 폭은 제한되고 최선의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설문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조퇴·결석하는 비율이 4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이 생애 전반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학 지원, 질 높은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6) 돌봄 교육

돌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이해, 응급상황 대처, 양육방법 등 **실질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돌봄 청소년들은 돌봄을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돌봄자 역할 및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7) 발굴 및 통합지원 연계 체계 마련

돌봄 청소년은 자신이 정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복지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역발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굴이 가능하려면 공공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의 기관 간 활발한 정보공유)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청소년 발굴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대의 경우 무엇보다 학교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담임 및 상담직 교사의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연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인지도 개선 및 정책 접근성 증진

단일 창구를 통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복잡성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경로(소셜미디어 및 지자체 별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를 활용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돌봄 청소년과 가족이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2. 정책적 제안

1) 기존 정책의 개선과 확장

정의

기존의 '가족 돌봄 청소년'보다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인 돌봄인(carer), 그리고 청소년을 특정하여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고한다. '돌봄'의 의미를 명확히 하되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여 주돌봄자와 부돌봄자 모두를 포함하는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 '호주의 돌봄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을 참고하여 단순 동거가 아닌, 돌봄 관계의 실질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25세 이후 혹은 34세 이상 청년도 돌봄 필요성은 여전하고 돌봄의 어려움이 줄어든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 돌봄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해당 정책 하에서 돌봄 청소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돌봄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및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에 돌봄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2024:22)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적시된 해당 서비스를 받는 병동 입원결정 요건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에 보다 분명하게 '돌봄 청소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10.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현재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여, 30~50%의 본인부담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청소년과 가족들은 집에 누군가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방식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돌봄 청소년은 생계비와 의료비가 끊기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기초)의 대상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노동시장 참여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첫 직장을 얻은 돌봄 청소년에게 '이행기 급여'를 도입하여 초기 2년 동안 의료급여를 지속 제공한다. 자활급여가 유사한 사례이다.
2. 긴급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을 돌봄 청소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탈수급을 지원한다.
3. 돌봄 청소년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홍보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율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4. 또한 생계비나 의료비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사회서비스 다양화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와 유사한 **돌봄 청소년 맞춤형 심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자발적 이용을 유도하고 고립된 청소년에게 자조모임과 연계된 심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역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돌봄 청소년 발굴과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욕구를 파악한 후 건강/영양/교육/문화/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 청소년을 드림스타트 대상에 포함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에서 취업 상담 및 특강, AI 모의면접, 현직자 멘토링, 취업스터디, 직무박람회, 등의 서비스를 만 15세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역실업자훈련 등을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돌봄 청소년에게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돌봄 청소년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및 홍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용이 능숙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돌봄 청소년 관련 서비스와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구축한다. 영국 지방정부의 웹사이트¹²⁾는 이러한 실용성을 강조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학교,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발굴·연계·사례관리 체계 구축

돌봄 청소년의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의 주체를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미래센터 4곳을 개소해 이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나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많은 사례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대하여 일상적 발굴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례관리 기관의 권한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법적 ·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제안

단기적 방안: 기존 법 개정 및 전담 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가능성 검토

일반적인 특별법에는 내부에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정의, 범주, 지원목적과 내용, 전달체계와 구체적인 내용, 지원계획 수립과정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집단에 대한 특정 목적의 법을 만드는 것이 기존의 법이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존 법률 개정 방안

기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에 돌봄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다. 일본은 ‘어린이 · 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의 기본 이념을 명시한 제2조 7호에 돌봄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다.¹³⁾

수학(修学) 및 취업 어느 쪽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 청년, 가족 간병(介護)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 청년, 그 밖에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떠안고 있는 어린이 · 청년에 대해서는, 그 곤란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해당 어린이 · 청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것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령에 지원대상으로서의 돌봄 아동, 돌봄 청소년, 돌봄 청년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 아동복지법의 제3조에 5의 2를 삽입, 이들을 ‘지원대상아동’으로 명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5의 2. “돌봄 아동”이란 고령, 질병, 장애 및 일상적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또는 가족 이외의 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2조에 4의 2를 삽입, 이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

청소년복지법 제2조(정의)

4의 2. “돌봄 청소년”이란 고령, 질병, 장애 및 일상적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또는 가족 이외의 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 청년기본법의 제3조에 5의 2를 삽입, 이들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명시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5의 2. “돌봄 청년”이란 고령, 질병, 장애 및 일상적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또는 가족 이외의 자에게 상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취약계층 청년을 말한다.

13 참고자료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URL "F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1AC0000000071 (최종 접속일: 2024.10.01.)

법령과 함께 돌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본과 유사하게 ‘돌봄 청소년 전담 복지사’를 시군구 단위에 최소 1명 이상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언, 지역 내 자원 발굴 등의 민간 협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을 지역 실정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 방안: 돌봄인 지원 법률 제정 및 전달체계 확대

돌봄인 지원법 제정

돌봄인(carer) 전반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돌봄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돌봄 청소년이 24세 혹은 34세 이상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에 돌봄인 지원법을 통해 청소년, 청년, 성인 돌봄인을 포괄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부돌봄자가 상당히 많은데, 성인 주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돌봄 부담이 부돌봄자에 전가되므로 주돌봄자 및 부돌봄자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적 돌봄인 지원센터 구축

이 경우 모든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돌봄인 지원센터(Carer Center)’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치매지원센터 모델을 응용해 사례관리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에 돌봄 청소년 발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가족센터 중심 모델,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중심 모델, 사회복지관 위임 모델, 치매관리센터 등 공적 조직 활용 모델)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모델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발굴·사례관리부터 교육·심리지원까지 통합적 접근을 위해 각 지역 내 학교, 교육청, 병원, 민간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가며

돌봄 청소년들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또래들에 비해 교육, 건강, 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큰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생계부양의 책임을 짊어지거나 주돌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돌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돌봄의 어려움을 넘어 빈곤 문제와 관계 단절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난 돌봄 청소년들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돌보는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돌봄이 이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들은 숨겨진 존재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같은 방법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연구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돌봄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노혜진. (2023).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현황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3), 75-105.
- 모리타쿠미코. (2016). 아동·청년 개호자의 실태. 릿쇼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보. 제 18 호.41-51. (森田久美子 (2016) 「子ども・若者介護者の実態」『立正大学社会福祉研究所年報』18, 41-51.)
- 박지영, & 김병철. (2023).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케어러 정책의 시사점 탐색. 인문사회 21, 14(3), 2115-2130.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 선미정, 장정은, & 김진영. (2022). 돌봄 청년(돌봄 청소년: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2024).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대해 (영 케어러 관련).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施行について (ヤングケアラー関係)].
- 이봉조(2022). 영국의 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3, 5-15.
- 일본종합연구소.(2022).돌봄 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1-414.(日本総合研究所(2022)「ヤングケアラー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1-414.)
- 좌현숙. (2023). 가족돌봄 청년 (young carer) 은 누가 돌보나?. 청소년문화포럼, 175-187.
- 최연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 & 오서은. (2022). 청년돌봄자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 하마시마 요시에, & 미야카와 마사미츠. (2016). 오사카부립고등학교생 실태 조사.
- 함선유.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19, 34-46.
- 허민숙. (2022). 해외 돌봄 청소년(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2호. 국회입법조사처.
- Becker, F., & Becker, S. (2008). Young adult carers in the UK. Experiences, needs and services for carers aged, 16-24.
- Becker, S., & Sempik, J. (2019). Young Adult Carers: The Impact of Caring on Health and Education. Children & society, 33(4), 377-386.
- Buckner, L., Fry, G., & Yeandle, S. (2010). Carers in the region: A profile of the North East.
- Lindley, S., & Phelps, D. (2016). Protecting Young Carers from Bullying: A Guide for Schools, Community Groups and Policy Makers. Carers Trust.
- Collins, J., & Bayless, S. (2013). How caring for a parent affects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the young. Nurs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25(10).
- Dearden C., & Becker, S. (2004). Young carers in the UK: the 2004 report. London: Carers UK.
- Foley, N., Powell, A., Clark, H., Brione, P., Kennedy, S., Powell, T., Roberts, N., Harker, Francis-Devine, B., & Foster, D. (2022). Informal carers (pp. 1-64).
- Kettell, L. (2020). Young adult carers in higher education: the motivations, barriers and challenges involved—a UK study.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4(1), 100-112.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Unpaid care by age, sex and deprivation, England and Wales: Census 2021.

